

가.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국제기술협력 체계 구축

□ 對EU, 對북미, 對아시아·남미 등 권역·국가별 특성에 부합하는 산업기술협력 추진

- 북미, EU 등은 권역별 협력 유망기술 분야 기술습득을 중심으로, 현지 기술협력과 참여가 용이한 채널 확보
 - * 북미의 경우,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개별협력주체로 활용하고, EU의 경우, 국가간 다자프로그램(EUREKA, FP 등) 등을 활용한 협력전략 수립
- 아시아, 남미 등 신흥국·개도국은 R&D, 기술이전·사업화, 인력양성 등 다양한 협력유형을 활용하여 시장연계형 협력추진
 - * 한-베트남 모델: M&C분야 Action Plan 수립, 인력양성, 국제공동연구 등 : '12년 한-베 소재부품협력(10억), 인력양성(8억), 인큐베이터파크 건설(32억)

유럽	⇒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EUREKA, FP, EEN 등 다자협력채널 활용 ※ EUREKA(European Research Cooperation Agency) 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럽 40개국 중심의 국제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, 한국은 '09년 비EU국가 최초로 준회원국 가입 후, '12년 6월 준회원국 지위 갱신. ('11년) 57억→('12년) 71억 · 연방정부와 주정부(대학, 연구기관 등)로 다원화된 협력 ※ 글로벌산학협력형 국제공동R&D : 기술역량이 강한 해외대학(美 조지아텍 등)과 국내 기업이 공동으로 '과제기획-R&D-상용화'를 추진 ('11년) 34억→('12년) 54억
북미	⇒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술·인력·사업화 등 패키지형 상호호혜적 협력 추진
신흥국·개도국 (아시아·남미 등)	⇒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술·인력·사업화 등 패키지형 상호호혜적 협력 추진

□ 국가별 협력채널 조성 및 협력전략의 조정기능 수행

- '글로벌기술전략위원회'를 운영하여, 국가별 협력분야 및 추진 전략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과 협력 조정기능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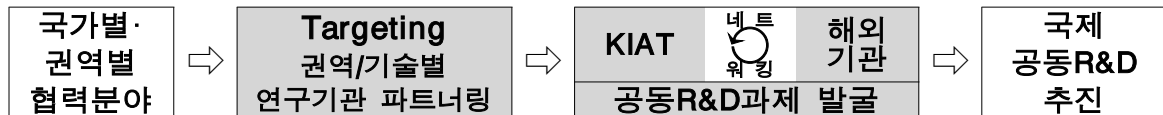
- 국가 간 협력분야 및 상호 협력방향·의제 발굴을 위한 기술협력 채널 구축

* 양국간 민관참여형 ‘韓·美 기술정례포럼 및 Technology summit’ 시범 추진 (‘13 상반기) 및 유럽권, 신흥국 등으로 확대 계획

나. 글로벌 네트워킹 기반 국제공동 R&D강화

□ R&D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R&D 추진

- 국가별·권역별 협력분야 발굴 및 중점 협력기관과 공동탐색·기획 활동을 통해, 글로벌 혁신과제의 지원기회 확대 추진



- R&D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과제 발굴 및 지원 효율성을 위해, R&D 사업간 통합운영* 추진

* 협력분야별, 권역별 양자사업(산업전략연계형 등) 및 유레카/FP 사업의 통합 공고 및 과제지원

□ 글로벌 네트워킹 확대로 국제기술협력의 질적 성과 창출

- 해외 우수 연구기관, 대학 등의 지속적인 탐색 및 기술협력 기반 마련으로 글로벌 R&D 네트워크 구축

* 기술협력 MOU 추진 확대 (12년 : 미국 아르곤연구소('12.10), 이태리 IMAST('12.10) 등)

- EU(FP, EUREKA, EEN), 북미, 아시아등과의 다자간 협력 및 양자간 협력축진을 위한 네트워크 場 확대

* EUREKA Day 개최 (4회: '13.4월, 서울)로 회원국간 네트워크 교류 정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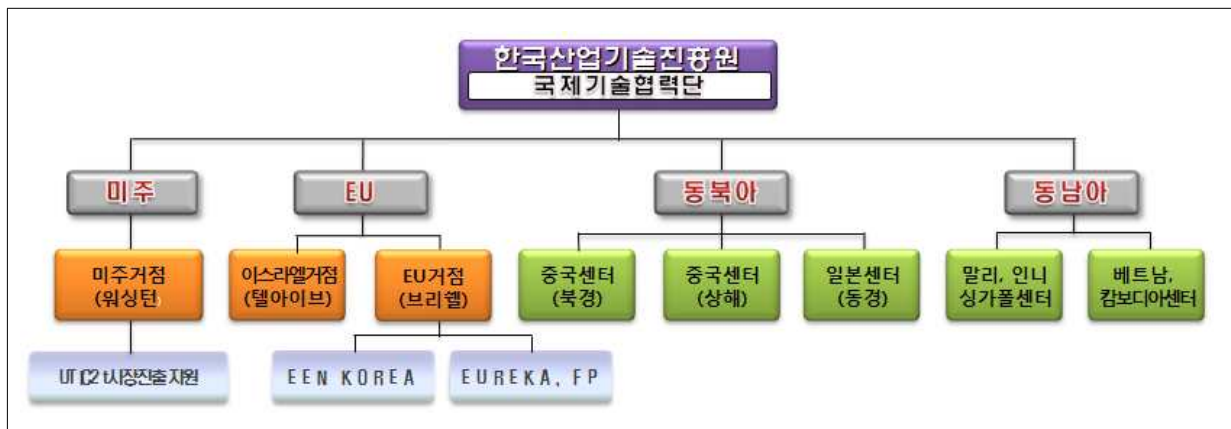
* 아시아기술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(1.5억, 기술료)으로 글로벌 경쟁 대응체제 확립

* 글로벌 파트너십(Global Partnership) 사업 등의 기업간 매치메이킹 프로세스 개선으로 국제기술협력의 성과 개선 등

다. 글로벌거점 운영체계 효율화 및 지원기능 강화

□ KIAT 현지거점의 창구 단일화 및 기술(R&D,사업화) 지원기능 강화

- 해외기술협력거점(GT)과 글로벌기술사업화센터(GCC)의 통합 및 기능적 재배치로 기업의 국제 공동R&D 및 사업화 지원 확대
 - * 선진권역은 기술정보·동향 및 네트워크 구축, 신흥시장은 기술이전·사업화 등 기술 비즈니스 중심의 네트워크로서 연계·운용
- 국내 지원거점을 보유한 글로벌 민간기관을 KIAT 해외 거점과 연계하여, 국내 유망기업의 글로벌 사업화 지원을 강화
 - * IC2(UT Austin)와 국내기업간 기술사업화 연계 추진
- 거점별 현지 환경·동향분석 및 사업정보·홍보기능 확대
 - * 주요 국가별 현지조사단 기반 동향보고서 발간,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
 - * 국내기업·유망기술의 글로벌 홍보, 국제기술행사(TechConnect) 참여 등



□ 타 정부 기관 및 연구기관의 현지거점과의 연계 및 지원기능간 조정능력 확대

- 중장기 차원에서, 해외 주요 거점기관(출연연 등)과의 기능적 연계 및 정보 지원창구 기능 제고
 - * 현지 출연연 및 주요 정부기구의 거점기구간 교류 및 기술지원기능의 상호 연계기능 강화